

# ‘전남대병원 이전’ 다시 뜨거운 관심

### 건물 노후·시설 포화... 증축·이전 방안 놓고 고민

### 연내 사전 용역... 동구 비상·타 지자체는 유치 관심

한때 잠시 논의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남대학교병원 신축이전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삼용 병원장의 주도하에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45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1982년 건립된 노후한 주요 건물을 고치기 위해 해마다 리모델링과 보수 등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데다, 환자 대비 협소한 시설 등으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측은 제1안으로 현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병원 본원과 바로 옆 의과대학 부지에 병상수 1004개, 수술방 30개 규모의 대형 의료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하지만, 10여년에 이르는 신축공사 기간 동안 환자들 직원들이 건축 소음과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측은 제2안으로 현 대학병원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측은 타지역 이전 시 부지면적 6만 5883㎡(1만9930평), 연면적 15만 8400㎡(4만7916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제2안의 경우 신축부지 매입에 따

른 추가 토지구입비 마련이 해결과제지만, 국가 소유(전남대학교)인 현 병원 부지를 매각 또는 맞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신축이전 예상 지역으로는 의료 수요가 많은 광주시 남구와 나주 혁신도시 접경지역을 비롯한 광산구 주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측은 현재 검토중인 위치가 아니라도, 자치단체들이 부

지제공 등에 적극 나설 경우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대병원은 일단 올해 내로 경제성 분석, 기술성 분석 등을 담은 사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부에 사업계획안 등을 담은 사업요구서도 제출하겠다는 의지다. 병원측은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상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입기 내에 미래의료를 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새 전남대병원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병원 신축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정부의 예산책정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알찬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10년 설립된 광주 자혜의원이 모태인 전남대병원은 1993년 독립법인 체제를 갖춘 후 학동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빛고를 전남대병원, 치과병원 등 3개 본원에 1976개 병상을 갖추고 직원 3384명이 근무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구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소방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을 돌며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몽골 가는 나눔·연대 광주정신... 3호 진료소 개소

### 3월 15일 현지 개소식... 찾아가는 의료 봉사활동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상징하는 광주진료소가 몽골 초원에서 진료활동을 펼친다.

3호 진료소가 될 몽골 광주진료소는 1, 2호 진료소인 캄보디아나 네팔처럼 특정 장소에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진료소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앞에서 사단법인 광주국제협력단 회원 등과 함께 몽골 차량 이동식 진료소 환송 행사를 열었다.

치과 진료와 치료 장비를 가득 싣고 장착한 이 차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치과 진료소다. 시비와 국제협력단 지원 등 5000만원을 들여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진료실로 꾸몄다.

시와 국제협력단은 유목민이 많은 몽골

의 여건을 고려해 초원을 찾아가는 의료 봉사 활동을 생각했다.

진료 과목도 치과 치료가 여의치 않은 현지 유목민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뒤 계속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나눔과 연대, 인권의 광주정신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아시아권 광주진료소 개소를 추진했다.

제1호 광주진료소는 2014년 6월 캄보디아 캄프스푸주에 열렸으며 현지 의료진이 하루 평균 3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제2호 진료소는 지난해 2월 네팔 파르바

현 디두와 마을에 문을 열었다. 2015년 네팔 강진 때 광주의 민간 의료진과 119구조대가 파견돼 구조활동을 펼친 것이 인연이 됐다.

몽골 진료소는 차량이 현지로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 3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정식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진료소 운영은 현지 의료진이 맡게 되며 광주시는 운영비 부담과 자원봉사 형태로 1년에 2~3차례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진료소는 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시아 주변국 주민들에게 광주의 나눔과 연대, 사랑과 봉사 등 이른바 광주정신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영광 한빛원전 6호기 재가동

한빛원전 6호기(100만kW급)가 계획에 방정비를 마치고 30일 밤 9시40분경 발전을 재개했다. 지난해 7월 계획에방정비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이다.

지난 3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 본부에 따르면 발전을 재개한 한빛 6호기는 오는 2일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6호기는 이번 정기점검에서 연료를 교체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원전설비 성능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기술기준을 통과했다. 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인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주입유로(지진·해일 등으로 전원이 장기 상실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에 냉각수 주입을 위한 관)를 새로 설치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 18:00  
달출몰 18:53 달지름 07:53

잠시 물러난 한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    |      |     |    |      |
|----|----|------|-----|----|------|
| 광주 | 맑음 | -4/6 | 보성  | 맑음 | -6/5 |
| 목포 | 맑음 | -3/4 | 순천  | 맑음 | -3/7 |
| 여수 | 맑음 | -2/6 | 영광  | 맑음 | -7/2 |
| 나주 | 맑음 | -7/4 | 진도  | 맑음 | -3/4 |
| 완도 | 맑음 | -2/6 | 전주  | 맑음 | -5/4 |
| 구례 | 맑음 | -7/6 | 군산  | 맑음 | -6/3 |
| 강진 | 맑음 | -5/6 | 남원  | 맑음 | -7/5 |
| 해남 | 맑음 | -6/5 | 축산도 | 맑음 | 1/3  |
| 장성 | 맑음 | -6/4 |     |    |      |

|       | 오전      | 오후      |         |
|-------|---------|---------|---------|
| 풍향    | 북~북동    | 북~북동    |         |
| 파고(m) | 0.5~1.0 | 0.5~1.0 |         |
| 서해    | 남부      | 북~북동    | 0.5~1.0 |
| 남부    | 남부      | 북~북동    | 0.5~1.5 |
| 남해    | 남부      | 북~북동    | 0.5~1.5 |
| 서부    | 남부      | 북~북동    | 1.0~1.5 |
| 남부    | 남부      | 북~북동    | 1.0~1.5 |
| 서부    | 남부      | 북~북동    | 1.5~2.5 |

| 생활지수 | 높음 | 보통 |
|------|----|----|
| 니출중  | 높음 |    |
| 감기   | 높음 |    |
| 미세먼지 | 보통 |    |

# ‘학교간 통합교육’ 석차 없애고 절대평가

### 새 교육과정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 개정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타학교 학생들과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도 성적 평가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교과서, 교과목, 수업·평가 방식 등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교육과정)을 올해 3월부터 중·고1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새 교과목 편제와 평가체계를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했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의 경우 몇 명이 수강하는나와 관계 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동교육과정은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2016년 기준으로 997개 학교가 718개 과목을 개설했고, 1만4497명이 수강(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했다.

고교 교과목 성취도 평가의 경우 1학년 때 배우는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 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과학탐구실

합은 3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외국어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는 5단계로 평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스키장 이용자 안전 불감...40% 안전모 미착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시즌(2014~2017 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가 총 492건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431건)로 대부분이었고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7.3%, 36건)가 뒤를 이었다.

또 소비자원이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이용자 284명, 스노보드 이용자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6%

(198명)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소통하는 의회

## 군민과 하나되는 의정

작은소리에드워, 기울이는 의회

###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